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한반도 마음체계의 갈등구조*

장 윤 미**

요약

안중근은 남북한 민중의 마음속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기개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민족 영웅이다. 또한 안중근은 근현대 시기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알려지며 다양한 평가를 받아온 동아시아의 인물이다.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지나오며 각기 이질적인 체제를 구축해온 남북한의 현대사 과정에서 안중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임을 상상하고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만드는 역사적 매개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와 권력의 통치 논리에 따라 다르게 기념되고 맥락화된 ‘분단된 영웅’이자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남북 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상징화되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1948년 남과 북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 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 계승을 강조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연결시킨다. 식민시기 좌우파 간에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향을 두고 드러난 균열은 분단 이후 그대로 이어졌고, 남북한 모두 지배 권력에 의한 안중근 기념화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각 권력 정통성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7S1A3A2065782)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의 근거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민주화의 이념이 정통성으로 확보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친일파가 안중근 기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남북화해, 한반도평화라는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안중근이라는 남북한 공유의 역사인물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적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기억으로 작동하려면 안중근을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재의미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안중근, 기념관 정치, 남북한, 안중근기념관, 마음체계

I. 들어가는 말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다. 두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시스템을 만들어왔고 각자의 체제에 걸맞는 서로 다른 사회공동체와 사회통합의 원리를 구축해왔다. 남북한은 정치체제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와 관념이 존재하며, 그중 과거 역사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집단 기억은 남과 북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근대사 역사에서 남북한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안중근을 꼽을 수 있다. 안중근은 남북한 모두에서 권력층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다.

안중근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자¹⁾ 수많은 위인전의 주인공이

1) 북한 교과서에서의 안중근 서술에 대해서는 윤경섭(2014), 한일 역사교과서에서의 안중근 기술 비교는 신주백(2009)을 참고할 것.

고, 남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에서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기도 하며, 그를 기리는 송모회가 조직되어 있다. 한국인이 라면 거의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역사성을 부여받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해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단지(斷指)된 손의 인장은 남한에서 민족적 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상징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도 안중근에 관한 다양한 기념이 있어왔다. 1979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남포시 남포공원에 안 의사의 독립계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애국열사 안중근 출생 125돌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안중근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의 차원을 뛰어넘어 압울하고 굴욕적인 한반도 상황에서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 민족의 恨을 풀어준 ‘마음’ 속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적’ 차원 뿐 아니라 민족의 기개를 일깨우는 ‘의지적’ 차원의 인물이기도 하며, 또한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나 강렬한 에너지의 진동을 느끼고 전파하고 싶은 ‘정동(情動)적 마음’을 불러오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공히 자랑스럽게 공유하며, 남북한 상호간 마음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다.²⁾

그러나 냉전과 분단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안중근은 남북한 각 체제의 국민국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맥락화되고 동원되어왔다. 남북 각자의 체제 정당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강화되어온 식민지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의 역사기술 속에서 보여지는 안중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안중근을 기념화하는 과정에서도 변화의 차이를 보여 왔다. 또한 탈식민적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마음’이란 감정이나 정서 뿐 아니라 인지, 문화 등을 포함하는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를 의미한다(김홍중 2009, 7). 또한 ‘마음체계’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로, 주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도성을 담지하고 있는 총체적 심리의 체계”로 정의한다(구갑우 2015, 265).

서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남북 뿐 아니라 남한 국내 차원에서도 분열되고 공고화되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남한사회가 민주화되고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도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2014년 중국정부가 하얼빈에 안중근기념관을 건립하면서,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간의 서로 상이한 평가 대립도 나타나고 있다. 남한 내부에서 안중근은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기개를 만방에 떨친 민족적 자존이자 영웅이지만, 안중근 평가와 기념을 둘러싼 갈등은 그가 순국한 지 백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내외 공간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안중근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적 기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사회에서 안중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인식의 변화를 보여 왔는지에 따라 남과 북의 갈등적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³⁾ 즉 안중근은 분단 이후 남북한 민중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남북한 사회의 세계관이 반영되고 각 사회의 정체성 구성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되어온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남북한에서의 평가 변화와 기념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남북 간, 그리고 남한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적 마음체계의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남북한이 공히 공유하는

3) 남과 북의 마음체계는 각 국면에 따라 ‘상호적 마음체계’의 가능성을 담지하면서도, ‘식민’과 ‘분단’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을 둔 적대적이고 갈등적인 마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합의 자원도 갖고 있지만, 식민시대 이념·권력·자원을 둘러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진 정치사회세력들 간 갈등의 연장이었던 ‘탈식민적(postcolonial) 분단’이 낳은 통합의 심대한 장애요소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남북한 마음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로는 이우영 외(2017)를 참고할 것.

역사인물 안중근에 대한 평가와 기억을 향후 남북한 상호간 마음체계 형성과 사회통합의 자원,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자산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안중근을 어떻게 재맥락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중근의 삶과 독립 투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남북한 사회의 인식의 차이나 변화를 보여주었다(이기형 2010; 신광철 2003). 본 논문에서는 역사인물에 대한 국가 의식을 보여주는 ‘기념관’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념의식 등 다양한 ‘기념의 정치’를 통해 남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안중근을 어떻게 기념해왔는지 살펴본다. 기념관의 설립이나 기념의식 등은 역사적인 인물의 행적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화와 기념화의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안중근이라는 역사 인물에 대한 기념 작업을 비판적, 맥락적으로 보여주면서 안중근을 둘러싼 기억 작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 해방, 분단과 냉전, 민주화, 탈냉전, 세계화라는 압축적인 20세기 역사를 지나 오면서 현재 한반도에는 다양한 갈등적 마음들이 지역별, 세대별, 계급별로 중층적으로 겹쳐있다. 이러한 마음의 중층적 갈등들이 안중근을 둘러싼 평가와 기념을 둘러싸고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에 의해 활용되고 전유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뿐 아니라 북한에도 안중근 추모관 및 추모비가 있으며, 해외에도 안중근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민간 추모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국가의 기획과 지원으로 세워진 안중근기

4) 안중근을 소재로 한 영화로는 상해파 한국 영화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제작된 <애국혼>(1928년), 남한의 <안중근사기>(1946년),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1959년), <의사 안중근>(1972년), 그리고 북한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979년) 등이 있다.

념관과 추모관이 각기 어떠한 배경과 의도에서 설립되고 기념되어왔는지 살펴보고, 또한 추모와 기억의 과정 속에서 안중근에 대한 마음은 시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어떠한 갈등과 균열 구조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또한 남북한 뿐 아니라 중국 하얼빈에 설립된 안중근기념관의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하얼빈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장소로 기억되지만, 현재 하얼빈은 중국 영토이자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안중근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교적 복잡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중국의 남북한 및 일본에 대한 정책과 시각 변화, 조선족 사회 내부의 호응, 그리고 중국 소수민족으로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과 함께 중국 하얼빈에서의 안중근기념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는 이유는 식민과 이주의 역사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역사인물에 대한 공유의식이기 때문이며, 또한 안중근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식민-제국주의와 냉전 역사의 중층적인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식민과 분단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기념되고 추앙되어온 안중근을 보다 넓은 공간과 관점에서 재조명해봄으로써 한반도 마음속에 각인되고 변화되어온 ‘민족’에 대한 중층적 마음을 직시해보고, 동아시아라는 좀 더 넓은 지리적 공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민족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발신할 수 있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기념의 정치’와 시대의 경계(境界)인물 안중근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공식적인 역사기록이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⁵⁾, 즉 역사기술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아래로부터의 각 지방 및 기층의 체험과 목소리를 담은 대중적인 기억의 함의를 규명하려는 관심이 증가되어왔다. 대중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위로부터 형성되는 지배 권력의 입장 혹은 엘리트층의 역사관과는 구별되어 존재하는 일종의 ‘대중적인 기억(popular memory)’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화된 기억의 재현 혹은 지배적인 기억과 충돌하고 이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 과거 정치적인 이유와 압박으로 침묵 내지는 주변화 되었던 기억들이 부상되고 다시 소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중근이란 인물을 둘러싼 쟁점은 지배 권력의 기억 이외의 억압된 대중적 기억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혹은 다양하게 경합하는 기억들 간의 갈등과 투쟁이 내재된 것으로 파악하는 ‘기억의 정치(the politics of memory)’의 측면과는 다른 특이점이 존재한다. 즉 안중근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계승해야 하는 정신과 그의 사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념의 주체’ 혹은 ‘기념의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역사일지라도 각 체제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내려지는 것은 일견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절대적인 추앙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의 자격을 따지며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안중근 이외에는 극히 드물다. 이를 두고 좌우파 간의 이념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기념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어떻

5)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이란 개인이 소장한 파편화된 기억이 아닌 사회적으로 배분되고 공유되며 일정한 권력과 담론작용 그리고 주체들의 실천 등의 개입에 의해서 변화와 인정, 투쟁과 형성의 과정을 부단히 겪게 되는 대상을 지칭한다.

게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이념간의 갈등으로 단순화해서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서 지배 권력에 의해 강조된 안중근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주로 민족의식 고취와 국가에 대한 충성 및 민족 통합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되어왔고 이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관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토 히로부미 격살’이라는 영웅적 행위는 그의 사상에 대한 평가나 당시 시대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우리 사회에서 ‘민족의 영웅’이란 절대적 위치로 맥락화 되어왔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종의 ‘정치적 토템’으로 상징화되었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형성된 안중근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나 新舊 사상의 교차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웅적 행위’만 따로 떼어내어 냉전과 분단의 역사 위에 이식함으로써 우리에게 특정한 기억만을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이 완전히 권력의 동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 안중근의 특이점이 있다. 식민시기 그리고 해방이후 안중근에 대한 기념이 순수하게 대중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기개를 드높여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중근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아왔고, 또한 고난과 시련의 식민의 역사를 견디게 해준 상징적 인물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중근에 대한 대중의 마음을 단순히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족정체성 창출 과정에서만 파악할 수도 없다(김경일 2009).⁶⁾

6) ‘대한민국 안중근’이라는 글자와 약지가 없는 손바닥 낙관이 찍힌 그림,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등의 글귀는 티셔츠나 스티커, 캐릭터의 문구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중근은 ‘권력 기억’과 ‘대중 기억’ 간의 갈등이라는 구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그리고 좁게는 남한 내에서의 좌와 우의 갈등 구도의 접점에 놓여있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지배 권력이나 대중적 차원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으며, 문제는 그의 행적을 어떻게 기억하고 활용하는가를 둘러싸고 쟁점에 놓여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 보다는 ‘현재’를 둘러싼 쟁점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식민체제와 현재 분단체제의 연속과 단절을 되새기게 하는 인물이기도 한다. 민주화의 진전과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과거에 대한 증언이나 기억의 재현, 나아가 이미 표현된 기념물의 수정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안중근에 대해 갖고 있는 집합적 정체성이나 집단 기억의 표출은 여전히 ‘민족의 영웅’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대신 누가 안중근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논쟁, 즉 ‘기념의 대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다. 안중근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안중근 기념의 역사’ 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를 시대적 맥락과 분리한 채 그의 위대한 거사에만 집중하고 이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성역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안중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은 지난 백여 년간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남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영웅이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안중근은 국민국가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특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⁷⁾ 안중근은 국

7) 안중근 연구사의 쟁점과 현황에 관해서는 신운용(2013), 조광(2000)을 참고할 것.

민국가 차원에서 충성스런 ‘국민 만들기’의 매우 유용한 역사적 교감(敎鑑)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민족사에서 동시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을 상징하는 역사 인물인 동시에 이산(離散)된 해외동포들이 척박한 삶을 견딜 수 있도록 결집시키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가 격살시킨 이토 히로부미의 국가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지칭되는 인물이다.

안중근은 의병의 충의에서 홀로 떨어져 일어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의사(義士)’이기도 하지만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에게 정신적, 정동적 영향을 미친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으며,⁸⁾ 전제군주와 천황제를 옹호하는 전통적 군주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도널드 킨 2017),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동등하다는 근대적인 천부인권관을 지니기도 했다.⁹⁾ 또한 당시 동학운동을 ‘동학당’으로 폄하해서 보는 유교적 위계 속에서의 계급관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고위 탐관오리나 무능한 정부와 내각을 비판하며 ‘이천만 동포’를 위해 거사를 결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국가권력층과 대중을 분리하여 사고하며 대중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한 근대적 인물이기도 하다.¹⁰⁾ 개인적

8) 1909년 11월 6일 옥중에서 작성한 <안응칠의 이토 침략정책 규탄문>에서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천하대세를 멀리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장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가 보나. 그러므로 나는 생각다 못하여 하얼빈에서 총 한 방으로 만인이 보는 눈 앞에서 늙은 도적 이토의 죄악을 성토하여 뜻있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일본 통감부(統監府) 문서 7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안중근 의거는 일본 좌파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안중근이 순국한 지 3개월 후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는 천황암살 계획을 기도하다 체포되어 1911년 1월에 처형된다.

9) <안응칠의 이토 침략정책 규탄문>에서 안중근은 “무릇 문명이란 것은 동서양, 잘난이 못난이, 남녀노소를 물을 것 없이 각각 천부의 성품을 지키고 도덕을 숭상하여 서로 다투는 마음이 없이 제 땅에서 편안히 생업을 즐기면서 같이 태평을 누리는 그것이라.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여 이른바 상등사회의 고등인물들은 의논한다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요, 연구한다는 것이 사람 죽이는 기계라. 그래서 동서양 육대주에 대포 연기와 탄환 빗발이 끊일 날이 없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닐 것이냐. 이제 동양대세를 말하면 비참한 현상이 더욱 심하여 참으로 기록하기 어렵다”라고 적고 있다.

10) 안중근은 부하 의병에게 일본인이라도 양민을 살해하여 서로 감정을 해쳐서는 안

으로는 독실한 믿음을 지닌 천주교 신자였지만, 한국의 의병투쟁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던 신부에게는 대담하게 맞선 인물이기도 하다.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임하여 적의 최고 수장을 격살한 현실적 인물이지만, 당시 의병투쟁에서 체포한 일본 포로를 만국공법에 따라 도덕적 훈계를 하며 풀어준 유교적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안중근을 단지 한국 대 일본의 주권국가 대립 구도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주권국가 간의 권력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하고(2014년 하얼빈 기념관), 민간과 민간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공유되는 기억이기도 하며(일본의 민간기념),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는(남한민중과 북한민중) 역사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중근은 남북한을 매개하는 역사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충돌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남한 내부에서는 안중근이 갖고 있던 군주관이나 민중관을 둘러싼 평가 간의 충돌이 있으며, 남북한 간에는 남한의 독립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 불굴의 민족 기상을 보여줬지만 개인적인 영웅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북한 평가 간의 충돌이 있다. 또한 국가 사이의 상호공존과 공생, 협력을 강조하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패권주의적인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이 충돌하기도 한다.

안중근이 갖고 있던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전쟁 직후 남한의 국가권력이 안중근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직후 가장 집중적으로 건립된 것은 전사자들을 추념할 시설인데, 이는 국가가 전사자를 숭배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시동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의 민족주의와 반공이념의 대표적인 결합

된다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의병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1908년 7월 교전 끝에 생포된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해준다. 안중근은 5회 공판에서 일본의 대중들 역시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얼마나 간신 이토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피력하면서, 모두가 자주독립할 수 있는 것이 평화이며, 그 중 한 나라라도 자주독립하지 못하면 동양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안중근편 I).

물로 진해에 이충무공 동상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의 미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1957년 인천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이 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에서, 게다가 일본이 세운 만주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군부정권에서 어쩌면 안중근이 갖고 있는 국민동원의 유효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는지도 모른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안중근에 관한 연구는 그의 독립운동과 동양평화론 사상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고, 특히 2009년 안중근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학술회의를 통해 그의 의거와 사상이 다양하게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예컨대 안중근의 의거가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위상, 안중근의 천황관 혹은 군주관, 안중근의 동학관 및 민중관, 그리고 그의 동양평화론에서 나타난 근대주권과 전통적 유교사상 간의 충돌 문제 등이 있다(도진순 2010; 한상권 2004). 이러한 쟁점들은 안중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안중근을 자랑스러운 항일민족의사로만 기억한다.

안중근을 지금 우리의 국민국가적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동양적 세계관과 유교적 엘리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뚜렷한 근대문명관과 독립관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일본의) 사천만 인민과 한국의 이천만 동포를 위해, 또한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에 충의를 다하기 위해 이번 거사를 결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토는 멋대로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영웅으로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며 십 수만의 인민을 죽였다.” 이러한 안중근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사해동포적인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면서 “국가 앞에서는 종교도 없다”며 근대적인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섰던, 이른바 시대의 경계에 섰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중화문명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

면서 변화되었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세계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중근의 사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보여준 인종론에 기반한 인식, 일본 천황에 대한 호의 등은 당시 동아시아 사상계가 갖고 있던 과도기적인 지적 논쟁의 상황에서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중근이 안고 있는 시대적, 사상적 복잡성을 논의하지 않고 시대와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 아이콘으로만 기념하는 방식은 결국 국민국가 경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안중근의 잠재력을 사장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념관 정치를 통해 안중근을 둘러싼 남북한 마음체계의 갈등 구조를 살펴본다.

Ⅲ. 남한: ‘기념화된 기념’에 갇힌 민족 영웅

‘기념(commemoration)’은 과거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재현으로, 기억을 현재의 지평 속에 불러내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념은 역사를 재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국민국가체제에서 기념관은 민족교육과 국민교육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기념관 혹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권력의 상징이며, 국가의 일정한 목표를 위해 역사를 구성하는 동시에 역사가 해석되는 공간이다. 기념물이나 기념관 건립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가 작동하는 세 단계의 장들을 잘 보여준다. 기념관 건립운동을 추진하는 과정, 기념관의 기능과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건립된 기념관을 통해 과거를 전승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기억의 정치를 구성한다. 기념조형물은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하는 만큼 사회통제의 장치로 작동한다(정근식 2006, 282). 근대 기념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국가가 이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근대국민국가는 국기, 국

가, 국가적 문양(엠블럼) 등의 상징을 만들어 보급시키고, 기념을 국가적 수준에서 수행한다. 국경일을 정하고 국가적 기념공간을 만들며, 전체 시민을 기념의례에 참여시킴으로써 동질적인 역사의식과 시간감각을 갖는 국민들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념문화는 매우 영웅숭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근대시기 서구로부터 수용한 일본식 기념문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식의 기념문화가 근대 형성기이자 식민지 피지배기간에 많이 이식되어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하부구조를 형성한 것이다(정근식 2006, 283). 해방 후 안중근 관련 첫 기념사업 역시 동상 건립부터 시작했고, 이러한 기념문화 자체에 일제가 남긴 유산이 남아있다.

1945년 12월 11일 장충단에서는 “안중근선생 동상 건립기금 및 장충단 재건총회”가 개최되고, 박문사 안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안중근 동상을 건립하기로 한다.¹¹⁾ 그러나 이후 한국전쟁 발발과 기금 문제로 동상 건립은 추진되지 못하다가 1959년 5월 23일에야 남산 기슭 왜성대(倭城臺) 옛터에서 안중근 동상 제막식이 거행된다. 그러나 ‘태극기를 든 청년’으로 형상화된 안 의사의 동상은 친일 이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각가 김경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안중근은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박정희 정권 아래서 시도된 성역화 작업에 동원된다. 정부는 1962년 안중근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다.¹²⁾

11) “한일합방의 괴수 이등박문을 위하여 장충단에 일인의 손으로 건설된 박문사 안에 있는 이등박문의 동상을 파궤하고 우리 순국열사 안중근 선생의 동상을 건설하게 되었다. 우리의 원수 이등을 총살하고 우리 골수에 매진 원한을 푸려준 안선생 동상을 인연 김혼 박문사 자리에 건립하기로 되었다.”(동아일보 45/12/12)

12) 1962년 3월 26일 박정희 추념사는 다음과 같다. “8.15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은 오로지 의사의 구국정신과 민족정기의 체모를 죽음으로 지킨 결과이며 의사의 불굴 불굴의 기개와 만고불역의 구국지성은 민족의 귀감이라 하겠다... 우리는 의사의 유지를 계승하여 하루빨리 후진에서 벗어나 외적으로 인하여 억제되었던 민주대한의 도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압축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기어이 구축하여 천국에 계신 의사의

197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성금 등으로 일제 시기 조선신궁이 있던 서울 남산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건립하고 1971년 개관한다. 남산 안중근기념관 정문 앞에는 1979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탄생 100돌을 기념해 쓴 글씨가 새겨진 기념비를 놓았다. 자연석으로 만든 기념비에는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전당(殿堂) 1979년 9월2일 대통령 박정희”라는 글씨를 새겼다. 당시 정부는 안중근 의사 탄생 100돌을 기념해 대대적인 추모 행사와 기념관 성역화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그해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¹³⁾ 이후 세월이 흘러 기념관이 노후·협소해짐에 따라 2004년 안중근의사숭모회와 광복회의 요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보훈처에서는 2010년 10월 26일 새 기념관을 지금의 남산 자리에 개관한다. 그러나 “민족정기의 전당 1979년 9월2일 대통령 박정희”라고 씌여진 비석은 여전히 재개관한 남산안중근기념관 입구 안중근 동상 옆에 아무런 해설판도 없이 놓여있다.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중근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기념의 전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가는 이러한 기념관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적 기능과 교육적인 효과를 수행해왔다. 새로 건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안중근의사의 단지동맹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묶은 형태로 지어졌고, 이 건물은 2010년 서울시로부터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층 전문박물관이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

수미를 떨어 드릴 것이라...”(동아일보 62/03/27).

13)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장이자 이순신 성역화 사업의 이데올로그로 알려진 이은상은 1979년 5월 21일자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안중근 의사 탄생 1백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프레스인 03/10/30).

는 기관이라는 것이 기념관을 운영하는 단체 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의 설명이다.¹⁴⁾ 그러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기념관을 운영하며 안 의사의 위업을 기리는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윤치영, 이은상, 백두진 등 친일과 독재정권의 지지자 혹은 수혜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대표적으로 1963년 안중근의사숭모회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낸 윤치영은 골수 친일파로 알려져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윤치영을 “외세와 독재 권력에 아부하여 잘 먹고 잘 산 자의 표본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치영의 집안은 대표적인 친일파 가문으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 의사 집안과는 상반된 길을 걸었다. 숭모회 이사장을 맡았던 이은상이나 백두진 등도 친일 경력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며, 이후 숭모회 이사장을 맡은 이들도 안 의사의 정신에 부합한다기보다는 권력의 양지만을 좇은 사람이 대다수다(시사인 2009/10/30).

문제는 친일 이력으로 인해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중근을 권력 장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안중근을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매우 편협하게 평가하고 이를 고정된 시각으로 대중화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연스레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이 됩니다. 고쳐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요소가 되겠지요. 안중근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옳다고 여긴 핵심 가치, 이른바 정의를 위한 일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 물러섬이 없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

14) 안중근의사숭모회. <http://www.patriot.or.kr/>

이 오늘날 우리가 새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할 안중근 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¹⁵⁾ 이 말에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체제는 국가 혹은 지배 권력과 동일시되며 국가의 발전과 부강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곧 안중근 정신임을 강조한다. 반면 체제(지배권력)를 부정하는 집단,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력이 되고, 이러한 세력에 물려서지 않고 싸우는 것이 바로 정의를 위한 일로, 이것이 곧 새 시대 안중근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친일파들이 숭모회를 만들고 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의사는 이념가가 아니라 평화주의자다. 안 의사가 숭모회 분들의 친일에 대해 이해해주실 것이다(시사인 2009/10/30)”라고 견강부회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친일을 했던 안 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안 의사를 추모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안 의사는 원래 동양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싸는 분이고, 박 전 대통령의 마음도 분명히 받아들이 것(한겨레신문 2005/03/24)”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이란 지배 권력을 위한 충성과 친일 행적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대한민국 안중근』 2013년, 38호. 숭모회 안응모 이사장은 지난 1991년 ‘강경대군 구타 치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을 지내다 경질된 인물이며, 1989년 안기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보수·우익 단체 ‘자유시민연대’의 공동의장을 지냈다. 자유시민연대는 ‘일제 식민 지배는 축복이다’라는 망언을 한 한승조 전 고려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안중근 기념관 건립에 뉴라이트도 나섰다. 2009년 8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은 지 39년 된 현재의 안 의사 기념관은 낡고 좁아 관람객 30여 명도 들어가 기 힘든 형편이다”라며 성금 모금을 호소했다(시사인 2009/10/30).

안중근을 기념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있다. 기념사업회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단체로, 1987년 안의사 순국 추도미사를 거행한 것을 필두로 하여 1999년 안의사 탄신 120주년, 의거 90주년을 기념하여 “냉전과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21세기 통일을 완성시키는 시대정신”을 만들기 위해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를 발족한다. 안중근의사 추모사업 및 동양평화정신 계승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념사업회는 안중근 의사의 국가독립, 사회정의, 동양평화 정신을 민족, 민주, 통일 정신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모토 아래,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안의사 생가 복원사업’을 시작하고, 2천년에는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과 봉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남북 해외가 함께 하는 통일전문지를 내세우는 <민족21>를 발간하고 있다.¹⁶⁾

현재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지난 70여 년간 쌓여 있는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사회 전 부문에 적체되어 있는 친일과 독재의 찌꺼기가 민족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다고 보면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년을 맞이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자고 주장한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와 정치 공학을 뛰어 넘은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며, 그것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고 강조한다.¹⁷⁾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안중근승모회는 안중근기념식을 별도로

16)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greatkorean.org/>) 참고. <민족21>은 2001년 3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창간했으며, 2006년부터 명진 스님이 발행인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민족21 사이트는 2011년 이후 활동이 거의 없으며 월간 <민족21>은 2014년 3월호까지 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민족21> 편집주간인 안영민씨를 수사하면서, <민족21>에 실린 기사들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17)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http://www.greatkorean.org/>

진행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주도의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년 추모식’은 2018년 3월 24일 효창원 내 안중근의사 묘역에서 진행되었고, 안중근숭모회가 주도하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은 3월 26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별도의 추모식을 거행할 뿐 아니라 치열한 이념적 공방도 벌어왔다. 대표적으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2002년 순국 92주기를 맞아 안 의사의 평화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안중근 평화상’을 제정한 바 있는데, 2004년 평화상 수상자로 송두율 교수를 선정하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¹⁸⁾ 반면 월간 <영웅>은¹⁹⁾ “안중근 의사의 뜻과 사상을 되살려 통일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의 길잡이로 삼겠다”는 취지로 2015년 11월 창간호를 출판한다.²⁰⁾ 그러나 2017년 11월 이달의 영웅으로 박정희를 선정, 대한민국 근대화의 영웅으로 평가하고 2016년 8월 이달의 영웅으로는 이승만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 측과 ‘안중근의사숭모회 개혁을 촉구하는 모임’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숭모회에 가입한 515명의 개혁모임 회원들은 “숭모회 이사진은 과거

18) “간첩활동을 한 송두율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애국자인 안중근열사의 이름을 붙인 평화상을 준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안중근열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첩자활동을 한 송씨에게 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북한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에게 안중근평화상을 주는 것은 안중근 열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자유게시판).

19) 박창재 에픽소프트 대표는 2013년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주관하는 ‘안중근 아카데미’ 강의(15주)를 수강한 뒤 사비를 털어 월간 <영웅> 잡지를 발행했다고 한다.

20) 그는 “이념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안 의사를 비롯한 역사 속 영웅들과 일반 시민영웅들의 활약상과 정신을 널리 알려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리더 국가로 발전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힌다(한겨레 15/10/21).

친일파나 군사독재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수구·보수·반공 인사들로 임의로 구성돼왔다”고 주장하고 “즉각 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새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송모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의 요지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임원진을 총회를 열지 않고 특정 인사의 전횡과 밀실담합에 의해 구성했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안중근은 정치적 지향성을 달리하는 집단과 사회단체, 정치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자 동원의 대상으로 종종 활용되어왔다.²²⁾ 왜 그런가? 그것은 안중근의 삶이 보여준 뚜렷한 선명성, 즉 항일, 민족, 독립, 살신성인, 기개, 불멸의 투지 등의 가치가 개인을 돌보지 않는 매우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보여준 안중근의 의거는 청산되지 않은 식민과 친일이란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오히려 공적, 집합적 기억의 주요한 요소로 채택되고 일종의 기념비(historical monument)로 구축, 활용되어왔다. 이는 ‘선택적 기억’과 ‘의도된 망각’이란 이중적 변주에 의해 가능했다. 안중근의 영웅적 의거와 행적을 현재 권력의 논리에 맞게 신화화하는 작업과 함께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에 대한 의도적 망각이

21) “친일파 시비 붙은 안중근의사송모회”(주간경향 03/07/31). 법적 공방의 배경에는 이들 개혁모임과 송모회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개혁모임은 “설립 이후 한 번도 총회를 열지 않고 정관에 나온 교육 사업이나 사료 발굴에 관심 없는 송모회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움직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모회가 개혁모임에서 운영하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측 이사 7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들 인사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투옥되었던 사실을 들어 “전과자는 이사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개혁모임 측은 친일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온 안중근의사송모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중근의사기념관 들머리에 ‘민족정기(民族精氣)’가 아닌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전당이라는 엉뚱한 휘호비를 남겼고, 최근 송모회가 펴낸 ‘대한민국 안중근’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전투상황도를 사용하고도 아무 문제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22) 현재 안중근을 기념하는 단체는 안중근의사송모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며,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안중근뿐이다. 한국에서 해방 후 진행되어왔던 안중근 기념사업에 관해서는 윤선자(2009)를 참고할 것.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안중근의 마지막 휘호라고 알려진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은 국가(인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의 직분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한때 군인들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나 국가주의적 문구로 오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살인 금지의 계명을 받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이 이토를 직격한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즉 독립전쟁의 전투 행위 중에 수행한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도진순 2010, 268).

이렇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을 실제 역사 속에서 탈맥락화하고 탈정치화했으며 영웅의 반열에 올려 신격화시킴으로써 민중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다. 안중근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삶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시대적 정신으로 계승하기 보다는 안중근을 영웅이나 의인으로만 소비하고 신화화하면서 초역사적인 인물로 불러온 것이다. 민족적 기개를 보여주며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상징만으로 활용하면서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식민 상황에서는 안중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어려웠고 해방 이후 안중근 기념은 근대적 주체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되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근대주체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식민성을 떨치기 어려웠다. 안중근 기념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념의 코드와 양식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새롭게 단장한 남산 안중근기념관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외관에 비해, 기념의 내용과 형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만들기’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 박제화된 공간에 머물러있으며, 안중근을 통해 스스로 역사적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개 넘치는 민족영웅을 보면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임해서도 의연했던 우리 민족의 절개를 엿볼 수 있지만, 역사적 자각을 통해 민주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 민족영웅에 대한 민중의 마음을 완전히 담아내기에는 제한적인 기념장소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족’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유리되어 기념관 안의 전시 공간 속에 갇힌 상상이 되고 말았으며, 이에 민족을 구한 안중근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말 그대로 ‘영웅’으로 추앙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신격화된 인물이 되었다.

IV. 북한: 권력자 숭배를 위해 ‘애국’으로 상징화된 열사

북한에서의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져왔는데,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해방 초기 북한에서는 안중근 의거를 공식적으로 “애국 테러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즉 안중근 의거의 동기는 애국적이었지만 테러 수단을 취하여 민중과 유리된 개인영웅적 활동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윤경섭 2014). 조직력과 계급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평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북한 건국 이후에 생겨난 관점이 아니라, 이미 1930년대 식민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나타났던 평가이다. 코민테른 동양 비서부 산하 조선위원회에서 발간한 『콤무니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김단야의 글에서는 1932년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개인테러’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한다. 안중근, 이봉창, 강우규 등의 개인테러가 통쾌하긴 하지만, 군중의 조직적 대중적 투쟁을 방해하며 환상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윤경섭 2014, 56). 김일성의 회고록을 보면 마찬가지로 1930년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안중근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는 이미 해방 이전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향,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노선과 투쟁방식에서의 전략적 차이로 인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에 안중근 의거에 대한 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해방 이후 분단된 양국에서 각자의 체제 정통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건국 초기 정치엘리트나 학계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안중근을 의병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대중적인 평가이다. 대중적으로는 애국테러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북한의 민족주의 계열 정당에서는 안중근을 애국3의사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없다. 그것은 안중근 의거를 (북한 입장에서의) 독립운동의 차원 보다는 항일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애국적 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일은 일본에 저항하는 대중운동의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독립운동은 독립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는 정치적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과 전략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개 항일독립운동이라 통칭하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²⁴⁾

23) “무장소조론은 안중근의 옛길을 답습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테러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이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며 ‘만주국’이라는 것까지 세워 중국 관내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소조는 기본 전투단위가 아니다(김일성 1992).”

24) “북조선에서는 안중근에 의한 이등박문의 처단은 조선강점에 날뛴 일제침략자들에게는 공포와 타격을 주었다고 하지만, 끝에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반일운동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같은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도 조선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한 계점이라고 마무리를 짓는다. 또한 안중근 선생님이 연해주지방에서 만나본 독립운동가들을 고질적인 패싸움을 일삼으며 반일애국 역량을 분산시키는 조직으로 배워주었고(‘가르치다’의 북조선말), 안중근 열사가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를 받지 못하여 정확한 전략전술이 없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다고 배워준다.”

<http://koreaura.com/2015/11/15/article02/>

1950년대 중반이후 소련의 헝가리 침공, 유고의 독자노선, 스탈린 격하 운동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권 내부가 균열되고 독자적인 역사기술이 강조되면서, 북한 역시 애국주의적인 투쟁 전통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해진다. 노동당 3차대회 이후 『력사과학』에서는 역사학계가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영향 등 외부적인 조건 이외에도 19세기 말에서 3.1운동에 이르는 기간 민족주의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윤경섭 2014, 58). 이에 따라 안중근 인식이 점차 테러 수단에 대한 비판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이 옮겨갔으며, 대체로 1950년대까지는 ‘애국적 개인테러’라는 표현과 ‘애국적 의거’라는 표현을 병기하였다.

또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안중근 의거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시점으로 재인식하는 정치적 재평가가 진행된다. 1950년대까지 북한 문학문화의 장을 주도하던 임화, 한설야 등 식민시기 카프계 출신들을 반종파 투쟁을 통해 제거해 나간 김일성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간도에서의 항일혁명투쟁을 정치문화사상의 원류로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반일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안중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라는 기행문이 출간된다. 이는 1959년 5~10월 5개월에 걸쳐 김일성이 청소년 시기 항일활동 지역을 답사하며 채록한 증언을 수록한 책이다. 이 기행문에 따르면 김일성이 1927~28년 겨울 무송(撫松)과 그 주변 부락에서 반일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연예선전대 조직을 주도하였는데, 1928년 1월경 간도 무송 제1소학교 부속 조선족반 개교식 경축행사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연극을 공연했고, 이때 김일성이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1188). 북한 내에서 안중근에 대한 최초의 형상화는 바로 동북항일연합군의 김일성 부대 내

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이 최초로 창작한 발신작이 아니라 개작이라고 보아야 하며, 김일성이 각색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는 주장도 있다(이영미 2010).²⁵⁾ 이 교재에서는 침략 원흉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하려는 애국적 청년들의 대담한 행동들이 국내외적으로 적극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안중근 의거를 ‘애국청년들의 침략원흉 처단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침략원흉의 처단을 위한 ‘대담한 행동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중근 의거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윤경섭 2014, 64-65).

1980년대 들어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수령론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중근에 대한 인식도 수령론과 결합되어 새롭게 구축된다. 안중근의 행동은 애국열사로서 칭송받아야 하지만,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식의 교훈으로 결합되어 재평가된다. 이러한 재평가에 일조한 것이 1979년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이다. 이 영화는 1979년 조선예술창작소 백두산창작단에서 제작했는데,²⁶⁾ 이 영화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이 대단하여 촬영과정을 현지 지도했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예술이론인 이른바 ‘종자론’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즉 문화예술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가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의 종자는 이등박문을 죽였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올

25) 김일성 회고록에는 당시 <혈분만국회(血噴萬國會)>,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 <팔로부터 온 편지> 등의 화극이 모두 그 해 겨울 무송에서 창작해서 연출한 극이라고 되어있다.

26) 북한의 영화나 소설 등의 작품에서는 안중근의 실제 생애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허구 인물들을 다수 등장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에서는 김명국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농민 김명국이 양반 안중근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각색된 소설에서는 안중근의 각성을 돕는 또 다른 인물인 여성교육자 최순영이 등장한다(최척호 2000, 284-285).

바른 영도를 받지 못하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평가는 2002년에 소설화하여 한국에서 번역된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다.²⁷⁾ 이 영화는 한국의 서울방송을 통해 1998년 9월1일 방영되기도 했고, 안중근 의거 100주년인 2009년에는 중국 연변 일대에서 순회 상영되기도 했다.

또한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기념해서 건립한 조선혁명박물관의 한쪽 공간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물도 함께 전시하였다. 김일성 주석 자신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외조부는 창덕(彰德)학교에서 안중근 같은 인물을 배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지라고 하시면서 내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고 하셨다. 나는 비록 안중근 같은 유명한 열사가 되지는 못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되겠다고 대답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회고록에는 안중근의 의거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분명한 애국적 행동이지만, 인민대중을 교육하고 조직하여 각성시킬 때만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⁸⁾

27) “열혈애국청년 안중근은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었으나 그가 걸은 길로써는 조국을 구원할 수 없었다. 애국심은 높았으나 조국을 구원할 옳은 길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 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 보았으면...”(림종상 2006, 534-535)

28) 회고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당시 조선 청년 사이에서는 이준의 방법이 맞는지, 안중근의 방법이 맞는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상월(尙鉞)선생에게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안중근의 방법은 당연히 애국이지만 투쟁방식은 모험주의라고 말했다. 그의 견해는 나의 생각과 서로 일치했다. 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은 한 두 명의 대군벌 주구를 처결하는 테러방식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았고, 군중을 교육하고 그들을 각성시켜 전체 인민이 일어서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장 소조론은 안중근의 옛길을 답습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테러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이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며 ‘만주국’이라는 것까지 세워 중국 관내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소조는 기본전투단 위가 아니다.”(김일성 1992).

김일성의 회고록이나 또한 북한의 학계 및 여러 매체에서 나타난 안중근 인식은 개인테러 행위를 하였지만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식민지 역사를 종식시키지는 못한 “성공하지 못한 테러 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안중근이 순국한 것은 1910년 3월이고 김일성이 태어난 것은 그 이후인 1912년으로, 안중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되고 단결되어 하나의 자주적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후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연극이나 문학 등 문예작품은 항일과 혁명의 필요성에 의거한 당 조직 사업과 선전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의 안중근 역시 역사적 인물 그대로 조명되지 않고 항일혁명 과정과 혁명서사에 맞춰 각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7,80년대 북한은 안중근의 유해를 찾아 기념함으로써 민족 담론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안중근 유해발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 살던 안 의사 조카 안우생에게 유해 발굴을 지시했고, 북한은 두 차례나 대규모 유해 발굴단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한다. 1986년에는 김일성 주석이 중국 뤄순 감옥을 방문해 유해 발굴을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해진다.³⁰⁾ 중국은 1971년과 1984년, 1986년 등 5차례에 걸쳐 안중근 묘지를 조사했지만 결과는 없었고, 북한대표단 역시

29) 북한의 역사학계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펴 대표적인 근대사학자로는 의병운동연구자인 오길보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안중근 열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몰라 해매고 있었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개별적인 악질분자들을 처단하는 개인테러활동을 통하여 풀어 보려고 했다고 하면서 안중근 열사를 테러분자로 묘사한다. 또한 안중근 열사를 봉건지주양반의 아들로써 농민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상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동정할 수는 있었으나 농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반일항쟁을 벌리려는 시각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오길보 1981, 40).

30) 1993년 9월 김일성의 중국 대련 방문 당시 안중근이 순국한 여순 감옥을 방문하여 추모했다고 전해진다(金宇鍾, 崔書勉 1994, 서문)

성과없이 돌아가면서 “김일성 주석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으니 귀국한 뒤 당과 정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鳳凰週刊 14/07/25). 2014년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 이후 일본 정부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나온 이후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에 “반일애국 열사를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그 해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3월26일)을 맞아 특집방송을 편성하고 일본 정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한 데 대해 “파렴치한 역사왜곡”이라고 비난하였다.³¹⁾

조직적인 계급투쟁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중시하는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안중근은 양반 지배층 출신이고 서학을 공부했으며 유교와 천황체제를 지지한 구시대의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행위는 애국적인 행위이지만 이 역시 개인적인 영웅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일본 제국주의도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국제정세 변화와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민족 담론이 강조됨에 따라 북한의 안중근 평가와 기념 역시 조금씩 변화를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젊은 시절 뛰어난 지도력과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중근은 항일과 애국의 상징으로만 부각된다. 절대 권력자에 대한 숭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역사 다시쓰기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지도 아래 민족적 정통성과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중근을 활용해왔으며, 대외적으로는 항

31) 조선중앙TV는 26일 오후 30여 분간 방영한 프로그램 '시사좌담·안중근 열사 특집: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 반동들의 궤변'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조선 침략을 감행한 일제에 대한 반일투쟁의 일환"이자 "정당한 정의의 애국투쟁"이었다고 지적한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일본의 처사는 "역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마저 다 내버린 무례한들의 얼빠진 짓"이라며 일본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만고 죄악에 대해 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그런 범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14/03/27).

일투쟁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V. 중국에서의 안중근 기념: ‘애국’과 ‘반일’의 본보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민간에서도 기념되고 있다. 2014년 하얼빈 역에 안중근기념관이 설립되었고, 뤼순 감옥에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동북쪽에 위치한 미야기현의 대립사 등 2개 사찰에 안중근의사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9월초 추모제를 치르고 있으며,³²⁾ 규수 사가현 시골마을에서도 마을 입구에 동양평화비를 세워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기리고 있다. 또한 교토의 류코쿠 대학에서는 안중근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는 안중근 의사를 국민적 영웅이로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 평가하지만, 학계와 민간에서는 안중근을 달리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³³⁾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거 직후 그를 추모하는 수많은 창작극과 문학작품이 만들어졌고(김춘선 2009; 서용 2009), 최근까지도 안중근에 관

32) 지바의 후손인 사이토는 “안중근 선생과 지바 씨의 마음에 담긴 보편적인 것을 나타내고, 진정한 교류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9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비를 안중근의사의 기념비로 보러오고 안중근과 지바를 맹우로 설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하며, 또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 또 다른 추모행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이토 다이켄 2015).

33) 대표적으로 동경변호사협회 부회장 카노 타쿠미(鹿野琢見)의 『안중근무죄론』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안중근의 정당성에 대해 해명하고 있고, 아세아대학 나카노 야스오(中野泰雄)의 저서 『안중근』에서는 안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에서 출판된 대표서 중 하나이다(金宇鍾·崔書勉 1994, 12). 일본학계에서는 1980년대 들어 메이지 정부의 침략성을 비판하고 안중근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등장하지만, 1995년 이후 다시 정치적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된 원인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廉松心 2017).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崔峰龍·許盈 2015). 김일성이 동북항일연합군으로 활동했던 길림성, 흑룡강성 등의 일대 지역에서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마음속에 항일영웅으로 자리잡고 있는 안중근을 소재로 한 화극을 창작, 공연하면서 대중의 반일정서를 고조시켜나갔다. 특히 5.4운동 시기 안중근 의거를 소재로 한 화극이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반일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³⁴⁾

신중국 건립 직후에는 소학교 교과서에 안중근의 사적을 수록하여 애국주의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金宇鍾·崔書勉 1994, 5). 1963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북한 사회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조(中朝) 양국 인민들의 항일투쟁은 1909년 조선의 항일지사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안중근 의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徐明勛a 2009, 9; 徐明勛b 2005, 58).³⁵⁾ 이는 1960년대 들어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성을 느끼며 만주 항일무장투쟁 연구를 ‘기념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항일투쟁이라는 공동의 역사를 매개하는 자원으로 안중근을 상기시킨 것이라 보여진다. 북한과 중국은 항일 측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항일투쟁 과정에서의 공적에 대한 평가 문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 사이에서 항일역사에 대한 평가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국적과 민

34) 1911년 신해혁명에서 1919년 5.4운동 사이 중국 혁명파들은 안중근의 살신성인의 기개와 애국애민정신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혁명의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대표적으로 1914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된 박은식의 「안중근전」, 1917년 창사에서 출판된 정위안(鄭沅)의 「안중근」, 1918년 청위(程滄)가 편집한 「안중근전」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혁명가 천두슈(陳獨秀)는 1917년 「청년잡지」 창간호에서 “중국 청년들이 톨스토이나 타고르가 아니라, 안중근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崔峰龍·許盈 2015, 25-26).

35) 여기서 중조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저우언라이의 이 말은 “중조역사관계에 관한 저우언라이 담화(周恩來關於中朝歷史關係的談話(1963年6月))”에 실려 있다.

족 정체성 사이에서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해있었다(김우중 2014).

2014년의 안중근의사기념관 설립은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배경이라 할 수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의 사업 결정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는 중국 최고지도부 내의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안중근 기념사업은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관광과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 안중근 기념 문제는 일본 측의 신경을 자극하는 사안으로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지역 차원에서의 안중근 기념은 허용하되 선전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안중근 기념은 1920-30년대 혁명 시기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동북 3성이라는 지방 차원에서 추진되어왔다. 2014년 중국 정부가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변화된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중간의 역사 공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일본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애국 교육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동북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을 보이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다. 그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간 중 이루어진 7월4일 서울대학 강연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귀를 언급하며 한중 간의 역사적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³⁶⁾

안중근 기념과 관련해서 중국 하얼빈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기념이 있어왔다. 1987년부터 하얼빈 각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중근의거 기념회를 거행했다. 1989년 10월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처음으로 안중근 국제세미나를 거행했으며, 1992년 한중

36) 시진핑 주석은 “안중근 의사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아니한다(白日莫虛度, 青春不再來)’는 글귀를 남기셨으며, 청년들이 청춘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빛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아주경제 14/08/07).

수교 이후 안중근기념활동이 급증했다. 하얼빈시는 1992년 가극 <안중근>을 상연하고 흑룡강성 안중근연구회를 설립했으며 하얼빈공업대학에 안중근장학금을 세웠다. 중국 관방에서 가장 먼저 거행한 안중근 기념전은 1990년 흑룡강혁명박물관에서의 안중근 사적전시회이다. 이후 1996년 동북열사기념관과 여순감옥에 안중근기념실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안중근 관련 학술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지만 관방에서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이를 널리 선전하지는 않았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얼빈 정부에서는 각종 좌담회 및 기념회 뿐 아니라 오페라, 음악회, 화보, 논문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하얼빈 정부 보도관공실과 조선민족예술관 공동으로 『중국인 마음속의 안중근(中國人心目中的安重根)』이란 책을 출판한다. 주 내용은 아시아의 평화를 짓밟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자로서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인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기뻐하는 중국 인민의 심정을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품격을 찬미하며 옥중투쟁과 동양평화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송종복 2011).

2014년 1월 19일 중국 하얼빈 역에 문을 연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한중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표지석이 아닌 기념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처음부터 기념관으로 지으라는 지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안중근기념관은 하얼빈시 정부와 철도부에서 출자하여 건설했고, 시 관련부서와 하얼빈 철도국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구체적인 건립사업은 2013년 11월 하얼빈시 문화신문출판국 부국장 서학동에게 맡겨진다. 서학동은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고 관내 안중근 전시실 건립은 그의 임기 내에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하얼빈시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조선민족예술관은 2006년 화

대 개관하면서 관내에 안중근기념전 전시장을 마련한 바 있다. 안중근 전시실은 한국의 독립기념관 등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고, 매년 만여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참관해왔다. 조선민족예술관은 문화영역의 선전과 중앙의 민족정책 실시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곳으로, 안중근기념관의 전시품들은 모두 이곳에서 옮겨간 것이고 안중근기념관은 예술관이 관리하고 있다. 안중근기념관 설립 기간 동안 중국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안을 유지해왔으며, 한국 측에도 개관이 끝나고 나서야 통보했다(이정식 2015).

기념관은 기존 하얼빈 기차역의 귀빈대합실을 개조한 것으로 100여 평방미터 면적에 입구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라는 팻말과 함께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시각인 9시 30분에 멈춰져있는 시계가 달려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입구 쪽에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등 안 의사의 주요 육필이 걸려있고, 내부가 시작되는 천장에는 안 의사 생애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놓았다. 그 다음 안 의사 흉상을 시작으로 가정·교육·신앙, 애국운동과 구국교육 실천, 의병투쟁과 단지동맹, 하얼빈에서의 열하루 등을 벽면에 사진 등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기념관 안쪽 유리창 밖으로는 기차역 플랫폼의 저격 장소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플랫폼에는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격살한 사건 발생지 1909.10.26> 이라고 써여진 팻말이 있고 바로 아래 이토가 서있던 위치는 마름모꼴로, 안중근의 저격위치는 삼각형으로 표시해두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6미터 정도 된다. 사실 이 표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었지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승객들이 알지 못했고 단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만 신성한 의미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2006년 이후 줄곧 표지판을 요구해왔는데, 2014년 안중근기념관 설립과 함께 결실을 이룬 것이다(鳳凰週刊 2014/07/25).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한국’의 기념

관이나 중국 ‘조선족’의 기념관이 아니라 ‘중국’의 기념관이다. 즉 기념관의 본래 속성이 그렇듯 중국 국가의 일정한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한 공간이다. 따라서 한국의 독립 기념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서문이나 문구 등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학자의 입장에서 기념 글귀를 넣으려는 조선족 관련인사들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³⁷⁾

또한 2014년 하얼빈 안중근기념관이 세워진 뒤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친다(觀察者 2017/11/08; 環球時報 2017/11/08). 안중근의 사기념관 건립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는 한국정부에 안중근이 범죄자라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 한국의 이러한 거동은 양국관계 발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안중근은 저명한 항일의사로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측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에게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경고한다(人民網 2017/11/08).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진행한 이후 2014년 1월 22일 중국 외교부는 “만약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14명의 2차 대전 전범은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 지도자들이 이들 전범들을 숭배하는 것은 어떤 행위란 말인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1월 29일 <인민일보>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정치실 주임 우화이중(吳懷中)이 쓴 “안중근은 악을 제거한 의사다(安重根是除奸義士)”라는 글로, 아베 내각의 “전도된 흑백 가치관과 세계관”을 비판했다. 또 다른 글은 주한 중국대

37)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허룡강성 당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우종을 인터뷰하여 이를 구술 자료로 남겼다. 김우종은 안중근을 매개로 한국과의 교류를 시작하여, 하얼빈에서의 안중근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우종은 인터뷰에서 기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국 관계자는 순 한국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한다. 역사연구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국가 간 공동연구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김우종 2014).”

사관 임시 대리처 천하이(陳海)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것으로,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동차에 단지 인장을 붙이고 다니며 일본 우익세력의 악행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한중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아베 정권에게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14/01/08).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기념관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한국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애국주의와 항일교육의 고취를 통해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내적으로는 기층사회 통합의 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목적과, 민족과 애국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립인사 기념의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 표지석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안중근 기념의 성역화를 통해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려 시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안중근 기념 뿐 아니라 2013년 광복군 표지석 건립을 중국에 요청하였고, 2014년 5월 29일 시안 두곡진(杜曲鎮) 한국광복군 본부터에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다.³⁸⁾ 그러나 이는 20세기 한반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독립운동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권의 합리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다음해에 이루어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로 판명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지만, 합의 직후부터 합의의 내용, 합의 과정의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38) 표지석에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중국 국민정부 지원 아래 중경에 설치되었으며... 한중 국민이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압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문구가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기돼 있다.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뚜렷한 역사의식과 일관된 국정철학도 부재하고 한중 간의 역사공조 전략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한 외교합의였다.

VI. 나오며

안중근은 남북한 민중의 마음속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기개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민족 영웅이다. 또한 안중근은 근현대 시기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알려지며 다양한 평가를 받아온 동아시아의 인물이기도 하다.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지나오며 각기 이질적인 체제를 구축해온 남북한의 현대사 과정에서 안중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임을 상상하고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만드는 역사적 매개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와 권력의 통치 논리에 따라 다르게 기념되고 맥락화된 ‘분단된 영웅’이자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권력에 의해 중요하게 동원되고 상징화되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근대로의 전환 시기 남북한 역사를 공유하는 인물이 분단과 냉전을 통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맥락화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족과 역사에 대한 남북한 마음 갈등의 거리, 그리고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적 마음체계의 구조를 파악해보았다. 1948년 남과 북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 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이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기미 3.1운동의 독립정신 계승을 강조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연결시킨다. 식민시기 좌우파 간에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향을 두고 드러난 균열은 분단 이후 그대로 이어졌고, 남북한

모두 지배 권력에 의한 안중근 기념화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각 권력 정통성의 근거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원 체제인 북한에서는 항일과 혁명을 연결하여 냉전이라는 체제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구축해나가고,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의 기개를 보여준 안중근 의사를 재평가하였으며, 그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김일성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이를 연대기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남한에서 지배 권력은 안중근을 민족영웅의 상징으로 신격화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독재 정권 하에서 정부와 정권을 일체화시키고 국민동원과 민족정신 고취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안중근 기념관은 체제와 대중간의 통합에 효과적인 매개로 상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민주화의 이념이 정통성으로 확보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친일파가 안중근 기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족들에게 안중근은 민족(종족) 정체성을 깨우쳐주고 온갖 시련을 견디게 해준 마음속의 민족 영웅이었다. 그동안 조선족 사회에서 안중근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민간 행사와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줄곧 소규모 기념은 허용하되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가 변화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일 견제와 항일애국 교육의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안중근기념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안중근은 중일 간, 한일 간 갈등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다.

안중근은 통합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의 역사 기억이지만, 그의 행적과 사상을 둘러싼 관점과 해석, 그리고 역사적 인식과 정치적 기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갈등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한

에서는 민족영웅으로, 북한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애국 거사로 추앙받으며, 이러한 평가의 프레임이 모두 국민국가적 틀에서 역사적, 민족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평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국민국가에게 역사는 정권의 정통성을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에서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와 기억의 재생산 구조가 국가에 의해 포획되고 독점되어온 것이다.

북에서는 안중근 의거를 항일독립투쟁의 시발점으로, 남에서 안중근은 헌법에서 계승하는 3.1운동 정신으로 이어지는 인물이다. 남북한이 역사적 정통성으로 공유하여 재인식할 수 있는 공통의 여지가 있다. 이미 남북한 간에는 중국조선족 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학술행사나 세미나 등 안중근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념식이 진행된 바 있다.³⁹⁾ 2010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북측과 공동으로 중국 랴오닝성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바 있고, 남북은 안중근 의사의 생가 복원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 11월 13일 북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안중근의사 관련 유적지 참관을 목적으로 방북한 바 있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공동사업과 교류의 시도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매번 취소되고 좌절되곤 했다.

그렇다면 남북화해, 한반도평화라는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39) 그동안 한중 양국이 중국에서 개최했던 대표적인 안중근 관련 학술회의로는 1999년 10월 베이징대학, 2000년 3월 랴오닝대학, 2007년 7월 다롄대학에서 진행된 회의가 있다. 또한 북한 측이 참여한 학술회의로는 2009년 10월 26일 다롄대학에서 개최된 “안중근과 동양평화: 안중근 의사 순국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있다. 2010년 3월 25-27일 다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는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안중근 순국 기념 세미나이다.

40) 사업회는 안중근의사기념비가 있는 남포공원, 안중근 생가 터가 있는 청계동,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을 참관하였고, 안중근의사 자료집의 남북 공동발간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초까지 북측에서 진행했던 안 의사 유해 발굴 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기도 한다(장정규 2012).

안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념해야 할까? 우리에게 안중근의 이미지는 항일민족투사의 면모가 압도적 위상을 차지한다. 폭압적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냥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통쾌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목적이 아니라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안중근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사상을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안중근의 행위를 절대화하고 영웅시하며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정치적 토템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오히려 안중근을 박제화된 영웅으로 만들어 오늘날의 변화에 맞춰 그의 사상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영웅’ 프레임은 한국 사회 내부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정치화된 인물로 국한시킴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부의 민족 영웅에 갇히게 만든다. 안중근이 품었던 사해동포적이고 인류박애적인 사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국가적 역사관과 국가주의 프레임에 갇힌 안중근을 구출해야 한다. 안중근을 기억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복수의 역사재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내재하는 복수의 관점과 대안적인 시각을 고민해야 한다. 민족 단위의 국민국가가 갖는 배타적 성격을 뛰어넘어 지역평화의 상징으로 삼아야 하며, 유해발굴의 경우 이미 몇 차례 진행된 바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도 경계하며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중근을 기념관 속에 박제화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하고자 한다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재의미화가 필요하다. 냉전과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했다. 국가권력 뿐 아니라 민간의 차원에서 우리의 힘없는 처지를 대신해 분풀이를 해준 영웅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전환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며 분단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안중근을 어떻게 재맥

락화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분열점’을 사회화하고 열린 논쟁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중근의 기념비화와 공식적인 의례화의 작업이라는 국가 논리가 투영된 종적 원리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 주체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안중근을 기념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횡적 정치가 필요하다. 즉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한 안중근의 탈정치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가로질러 지역과 사회 각 영역에서 안중근을 정치화함으로써 각자의 주체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안중근이라는 남북한 공유의 역사인물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적 전환(mindful turn)’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기억으로 작동하려면, 안중근을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맥락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차원으로 내려가 시대에 맞는 재의미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족’이나 ‘영웅’이라는 두 개의 대표적 국가국민 프레임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남산 안중근기념관에 전시된 안중근 기념에는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으며, 우리만 있고 타자가 없다. 즉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평화사상을 널리 선양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인류평화를 이바지하는데 그 소임을 다한다”는 기념관의 설립 취지에서, 과거 안중근의 나라사랑이 현재의 어떠한 나라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또한 안중근의 인류평화정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미래에 이바지한다는 것인지 전시를 보고 그것을 알아채기는 매우 어렵다. 타자와의 관계나 현재와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적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려면 과거 역사에 박제화된 기념이 아니라 현재 및 미래와 소통하는 기념으로 새롭게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18년 6월 6일

심 사 완 료 일: 2018년 8월 13일

게 재 확 정 일: 2018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구갑우. 2015.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1), 1949년.” 『현대북한 연구』 18(3): 260-306.
- 김경일. 2009.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열린 민족 주의와 보편주의로의 지평.” 『정신문화연구』 32(4): 193-219.
- 김삼웅. 2009. 『안중근 평전』. 서울: 시대의 창.
- 김우중. 2014. “재외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생활-김우중 구술.”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김일성. 1992.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춘선. 2009.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의 인식.”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 연구의 기초』. pp.377-410. 서울: 경인문화사.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서울: 문학동네.
- 도널드 킨 지음. 김유동 옮김. 2017. 『메이지라는 시대: 유신과 천황 그리고 근대화』 1, 2. 서울: 서커스.
- 도진순. 2010. “안중근의 전쟁과 평화, 죽음과 죽음.” 『역사와 현실』 75: 247-277.
- 림종상 각색 저. 2006.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서울: 자음과모음.
- 사이토 다이켄. 2015. “오컬 히스토리: 일본 미야기현 안중근기념비 건립과 한일민간교류 35년.” 『일본공간』 17: 286-309.
- 서용. 2009. “중국에서의 안중근 의거에 대한 반응과 그 인식.”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 연구의 기초』. pp.433-456. 서울: 경인문화사.

- 송중복. 2011.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역사탐방 견문기.” 『문명연지』 26: 131-136.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1971. 『력사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신광철. 2003. “안중근을 보는 두 가지 시선: 남북한 영화가 재현해 낸 애국적 인물의 궤적.” 『인문콘텐츠』 1: 226-240.
- 신운용. 2013.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쟁점.” 『역사문화연구』 45: 109-162.
- 신주백. 2009. “한일 역사교과서는 안중근을 어떻게 기술해왔는가(1945-2007).”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편. 『안중근 연구의 기초』. pp.499-534. 서울: 경인문화사.
- 오길보. 1981. 『안중근 애국활동의 교훈』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윤경섭. 2014. “북한의 안중근 인식 변화와 재평가 과정.” 『동북아연구』 29(1): 49-78.
- 윤선자. 2009. “해방 후 안중근 기념사업의 역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123-160.
- 이기형. 2010. “영상미디어와 역사의 재현 그리고 기억의 정치학: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 기념 텔레비전 역사다큐멘터리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2(1): 57-90.
- 이영미. 2010. “안중근 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북한의 연대기적 재인식과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1(1): 283-306.
- 이우영 외. 2017. 『분단된 마음의 지도』. 서울: 사회평론.
- 이정식. 2015.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지기까지.” 『대한국인 안중근』 40: 16-21.
- 장정규. 2012. “안중근 의사유적 공동복원 합의: 북,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 『민족21』 12월호.
-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 277-305.
- 조광. 2000.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12: 180-22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최척호. 2000. 『북한영화사』. 서울: 집문당.

한상권. 2004.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1): 검찰관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4: 287-320.

金宇鍾(김우중)·崔書勉(최서면). 1994. 『安重根: 論文, 傳記, 資料』.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廉松心(렌승신). 2017. “日本社會對安重根的記憶及認識變化.” 『北華大學學報』 18(4): 38-43.

徐明勛(서명훈)a. 2009. 『中國人心目中的安重根』.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徐明勛(서명훈)b. 2005. 『安重根在哈爾濱的11天』. 哈爾濱: 黑龍江美術出版社.

崔峰龍(추이평룡)·許盈(쉬잉). 2015. “近三十年來中國史學界對安重根研究綜述.” 『大連大學學報』 36(4): 24-31.

“日本就安重根建紀念館向中韓抗議 稱安重根是「恐怖分子」”. 『觀察者』 2017/11/08.

“安重根紀念館引爆中韓日爭吵 日本抗議中韓聯手”. 『環球時報』 2017/11/08.

“百年後再次攪動東北亞——安重根紀念館開館幕後”. 『鳳凰週刊』 2014/07/25.

“外交部：不接受日方「抗議」中方建設安重根紀念館”. 『人民網』 2017/11/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Abstract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Mind System Surrounding 'Ahn Jung-geun Memorial'

Jang, Youn Mi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at Dongseo University

Ahn Jung-geun is a proud national hero who increased the ethnic spiri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the hearts of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He was known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neighbor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Russia during the modern times and has received various reviews. In the modern history of the two Koreas, which have built disparate systems through the history of division and the Cold War, Ahn Jung-geun is a historic figure that makes the two Koreas imagine the same 'ethnic group' and share 'ethnic consciousness'. But at the same time, Ahn Jung-geun is a 'divided hero' that is celebrated and contextual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and the logic of power. Also, the political power of the two Koreas has mobilized and symbolized him in shaping the identity of their national states.

The history legitimacy that the two Koreas borrowed during their founding in 1948 was related to the 'anti-Japanese' history.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mphasized the succession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s, while the North Korean emphasized Kim Il Sung's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linking this history to strengthening individual legitimacy. The crack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ng at the colonial periods were revealed after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both the two Koreas held exclusive ceremonies to commemorate Ahn Jung-geun, and he is used as a basis for power legitimacy and as a means of social integration. However, in the midst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some raised questions over the political use of Ahn Jung-geun's memorial, and this has caused conflicts over Ahn's memorial. In order for Ahn to function as a 'mindful turn' memory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ahead of the er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xpand Ahn into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not a national level, and to remount him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Keywords: Ahn Jung-geun, the Politics of Commemoration, South and North Korea, Ahn Jung-geun Memorial Hall, Mind System